

대행 스님

우리 마음의 불씨를 밝혀 그 줄을 잡고 가면 금강주를 얻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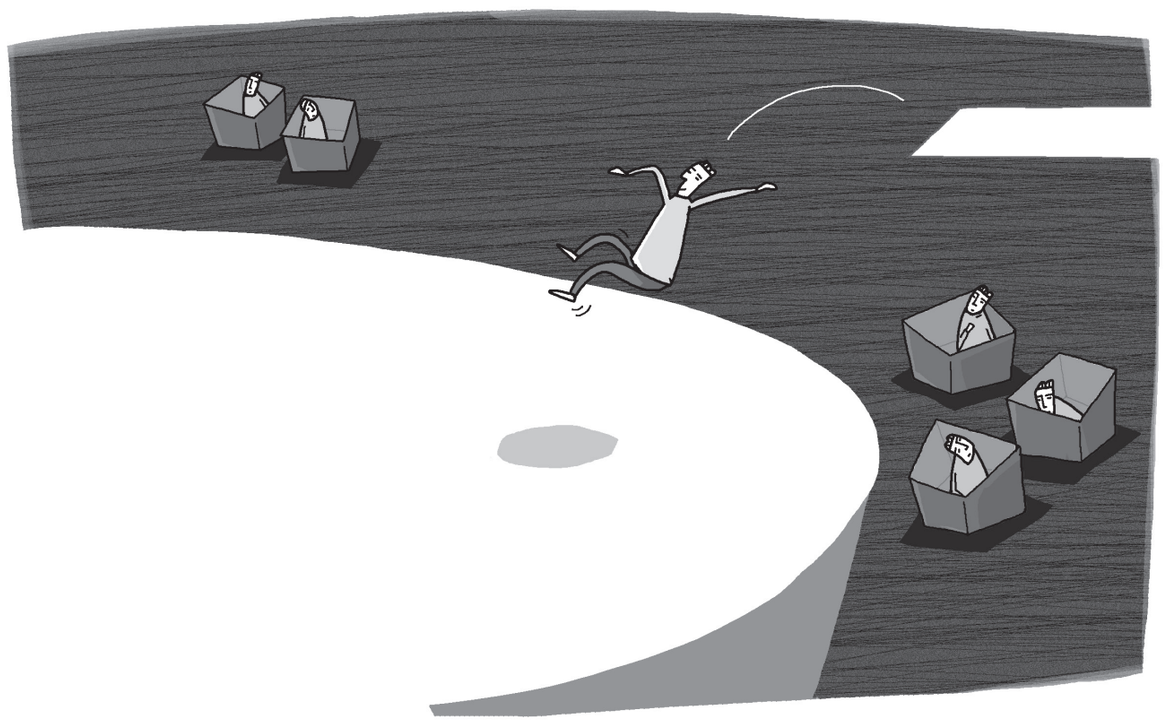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총무 스님이나 여러 스님들한테 여쭤 보시고 또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잘 지도받기를 바랍니다. 총무 스님한테 여쭤 보시면 초발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게을리하지 마시고 늙었으나 젊었으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음의 차원을 기르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또 좌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직껏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보면 스스로 아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 한 티끌 같은 불씨가, 마음의 불씨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사방천을 밝히고 오온이 스스로 밝아서 돌아가고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온이 밝아서 스스로 돌아가니 칠보가 가득 차서 어디에고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어디에고 발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눈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보물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는 거죠. 모든 일체 유생 무생을 조화로써 한 점의 상투 끝 동곳에 바로 그 빛을 가지시고 우리들한테 항시 비춰 주시는데도 여러분이 몰라서 항상 그렇게 헤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마음의 불씨를 밝혀서 그 줄을 잡으면, 그 줄을 잡는다는 것은 반야줄이라고도 하고 일심줄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전에 말씀하시기는 여의주라고도 했습니다. 그 여의주를 잡지 못하면, 모든 걸 여의고 줄을 잡지 못한다면 금강주를 얻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금강주에 의해서 화광주나 서광주나 흑광주, 야광주, 이 다섯 가지의 광주가 한데 합쳐서 스스로 돌아가는데, 금강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우주의 삼라만상 또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 그 천차만별로 돼 있는 중생들을 한생각에 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고 감이 없이 늠름하신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금강경 한 번을 제대로, 천 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첫머리, 중간, 끄트머리 이 세 마디만 보면 벌써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천 독을 하고 삼천 독을 한다 한들 그건 헛읽은 것입니다. 그런 걸 비유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지금 컵도 있고 안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경이다, 컵이다 이러는 것은 이름이고 모습일 뿐이지 속의 진의는 무엇이냐는 얘깁니다. 모습과 이름이 헛거가 아니지마는 여러분 앞에는 헛거예요. 왜 헛거냐? 사람이 한번 생각을 잘 돌려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법륜이 스스로 굴러서 바로 법의 양식이 되고 그대로 실상의 법의 도리가 되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깨치지 못해서 항상 그거를…. 그러니 중생이라고 부르고 사량이라고 하고 또는 아무리 굴리려 해도 아니 되니까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떠한 것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얘깁니다. 스스로 자기가 사람 되기 위함이요, 사람 노릇 하기 위함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기 위함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나투기 위함이야. 그래서 공생, 공용, 공체로서 같이 돌아간다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지 '우리가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나는 이만큼 알았으니까, 성문이다 연각이다, 무슨 보살이다' 이런 문제가 거기 붙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단, 그 한 티끌과 같은 한 불씨에, 바로 금강주는 있는 겁니다. 오관을 통해서, 이 오관을 통하면 그것이 가고 옴이 없이 보는 천체망원경이니, 이런 문제가 거기에 붙어 돌아가죠. 항상 얘기하지요. 오신통이라는 것은 지금 시쳇말로 이름들이 다양하게 붙었고, 전자에는 전자대로 오신통을 천안통이니 천이통이니 타심통이니 숙명통이니 또는 신족통이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돼서, 과학적으로 나온 말 좀 보세요. 컴퓨터니 천체망원경이니 또 천체영사기니 책정기니 탐지기니 무선통신기니…, 이것이 다 오관을 통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쳇말로 해도 전자에 있던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 말도 아니고 그 말도 아니고 바로 나한테 있다는 얘깁니다, 모두 각자. 나라고 손짓한다고 해서 나인 줄 아시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다 소소영영하게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론하지 않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 오십 가지 물감과 종이 한 장을 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장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십 가지 물감이 다 한 붓에 쓰여집니다. 물그릇 하나를 놓고 찍고 씻고 또 씻고, 여러 물감을 쓰려면 씻어선 또 찍어서 쓰고 이렵니다. 어떻겠습니까? 참 묘하지요.

그러면 진짜 물감은 어떤 걸까요. 또 진짜 물감이 없기 때문에 소소영영하게 찍어다 쓰면서도 하나 쓰면 하나 씻고 하나 쓰면 하나 씻고, 맹물에다가 연방 씻어 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소영영하면서도 한 장에다 조화 있게 그려 놓은 거를 누가 그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여러 가지를 그려 놓고 자기가 그렸단 말을 어찌 하겠습니까.

또한 자기마저도 공했어. 물감 오십 가지가 다 공하고 보니까 자기마저도, 그린 사람마저도 공했으니 어찌 '나'라고 할 수 있으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어찌 나만이 했다고 할 수 있으랴 해서 "얘들아, 보거라. 너희들은 그대로 공했느니라. 즉 공이며, 즉 색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는…. 그 단 두 마디 그걸 깨치지 못해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찰나찰나 말을 하면서 행하면서 또 봐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관을 통해서 책정을 하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자기 한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나? 여러분,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여러 생명들과 친우같이 뭉쳤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가지고 이 몸뚱이라는, 한 인간이라는 선장이 선출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도 많고 물질도 많습니다. 가지각색으로 생긴 것, 촌충이니 세균이니 뭐, 생김생김이 너무나 다양하게 생겼으면서도 소임을 제각기 아주 정교하게 맡아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맥이니 동맥이니 하는 것도 다들 그렇게 다양하게 맡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자인 선장은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의 마음입니다. 한 점의 마음입니다. 그 생명이 한데 합쳐진 대표인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잘 이끌어 가지고 나침반을 잘 놔서 책정을 잘해야만 오신통을 제대로 굴리는 겁니다. 오신통을 제대로 부린다 이겁니다. 내가 오신통에 말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신통을 제대로 부린다는 얘깁니다. 그 오신통을 제대로 부려야 바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